

예술의 첫 물길을 여는 자리 김리아갤러리, 신진작가 단체전 '마중물 2026' 개최

- 펌프질의 시작점, 신진작가에게 기회를 건네는 '마중물'의 11번째 이야기
- 예술가와 관객, 시장을 잇는 건강한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 실험성과 개성을 담은 신진작가 10인의 회화 및 설치 50여 점 전시



《마중물 2026》전시 알림 포스터

김리아갤러리는 오는 2026년 7월 2일부터 7월 18일까지 대표 기획전 《마중물 2026》을 개최한다. 2014년 시작된 '마중물'은 지난 11년간 떠오르는 세대 예술가들의 감각과 움직임을 가장 가까이에서 포착해온 전시다. 단순한 신진작가 소개를 넘어, 다양한 작업과 시선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꾸준히 기록해왔다.

올해 전시에는 김지호, 김지희, 박재은, 승지원, 염지애, 이강연, 이성은, 이시현, 이현도, 크리스틴 조가 참여한다. 회화, 설치, 조각 등 여러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10인의 작가는 재료와 이미지, 공간과 기억을 고유한 방식으로 해석한다. 작품들은 개인의 경험에서 출발해 사회적 풍경과 환경으로 관심의 범위를 넓혀가며, 각자의 관심과 태도를 드러낸다.

특히 이번 전시는 완결된 형식이나 정제된 결과보다 그 이전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참여 작가들은 질문과 탐구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작품에는 그 과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서로 다른 매체와 관심사에서 출발한 작업들은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인식의 방식을 드러낸다.

'마중물'이라는 이름은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의 물에서 유래한다. 이후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시작처럼, 이 전시는 작가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관객과 컬렉터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감각과 관점을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왔다. 또한 작가와 관객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며 예술적 경험을 나누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이어오고 있다.

11년 동안 이어져 온 '마중물'은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을 넘어 동시대 미술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소개하는 전시로 자리매김해왔다. 《마중물 2026》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언어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10인의 작가를 통해 오늘의 미술이 품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타이틀: 《마중물 2026》

전시기간: 2026.7.2(목) - 2026.7.18(토) 11:00AM - 6:00PM (일,월 휴무)

아티스트: 김지호, 김지희, 박재은, 송지원, 염지애, 이강연, 이성은, 이시현, 이현도, 크리스틴 조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Chungdamdong 100-31)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https://www.kimreeaa.com/>

문의: 김세정 Se Jung Kim / 02-517-7713 / sejung@kimreeaa.com

이송현 Songhyun Lee / 02-517-7713 / songhyun@kimreeaa.com



《마중물》은 지난 11년간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소개하며 그 흐름을 이어왔다. 해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작업 방식을 지닌 작가들이 참여해왔고, 전시는 그들의 시선과 태도를 통해 변화하는 미술의 풍경을 비추어 왔다. 새로운 작가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첫 시작을 함께하기 위해 출발한 《마중물》은 시간이 축적되면서 단순한 등용문의 의미를 넘어 하나의 기록이 되었다. 전시를 거쳐 간 작가들의 작업과 그 이후의 궤적은 《마중물》이 특정한 순간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의 과정을 함께 바라보는 자리였음을 보여준다.

《마중물 2026》은 회화, 설치, 오브제 등 다양한 매체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10인의 작가를 선보인다. 이들의 작업은 하나의 경향이나 주제로 수렴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마다 다른 형식과 언어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자신에게 가까운 경험과 감각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 기억과 관계, 일상의 풍경, 사물과 환경에 대한 관찰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이미지와 서사를 만들어낸다. 이번 전시는 익숙하다고 여겨온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무심히 지나쳐온 감정과 경험의 층위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For the past eleven years, *Majoongmool* has introduced emerging artists and their practices, tracing the evolving landscape of contemporary art. Each year, artists from diverse backgrounds and with distinct artistic approaches have participated in the exhibition, which has reflected the shifting contours of contemporary art through their unique perspectives and practices. Conceived as a platform to discover promising new artists and support the beginning of their careers, *Majoongmool* has, over time, grown beyond the role of an emerging artists' exhibition to become a record of artistic development. The works presented through the exhibition, together with the paths its participating artists have gone on to forge, demonstrate that *Majoongmool* has never simply captured a single moment but has served as a space that witnesses the ongoing process of change.

Majoongmool 2026 presents ten artists working across a range of media, including painting, installation, and object-based practices. Their works do not converge around a single theme or artistic tendency. Yet despite their distinct forms and visual languages, they share a common point of departure: experiences and perceptions rooted in their own lives. Memories, relationships, everyday landscapes, and close observations of objects and environments unfold in different ways, giving rise to new images and narratives. Through these diverse artistic perspectives, the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중물》이 축적해온 것은 새로운 이름의 목록만이 아니다. 그것은 각자의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가는 작가들의 고민과 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감각의 변화들이다. 이번 전시는 지금 이 시기의 다양한 시선이 한 공간 안에서 만나 만들어내는 동시대의 풍경을 담아낸다. 《마중물》이 기록해온 것은 특정한 경향이나 세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술의 현재다.

exhibition invites viewers to reconsider the familiar and to reflect on the layered emotions and experiences that often go unnoticed.

Over eleven years, what *Majoongmool* has accumulated is not simply a succession of new names, but the evolving attitudes, questions, and sensibilities that artists continue to develop through their practices. *Majoongmool 2026* brings together a range of perspectives that have emerged in the present, allowing them to encounter one another within a shared space. What *Majoongmool* has recorded is neither a particular generation nor a prevailing tendency but the ever-changing present of contemporary art.



Kim Jiho
책상(Table) (2026)

oil on canvas
152.5 × 122 cm



JEEHEE
Confessional Box I — Gravity (Occulta Pondus Habent) (2026)

photopolymer resin, organza, mineral pigment,
ink and egg tempera on rabbit skin glue gesso panel
25 × 15 × 3 cm





Seung Jiwon
Butcher's (2026)

oil, merino wool on canvas
80.3 × 130.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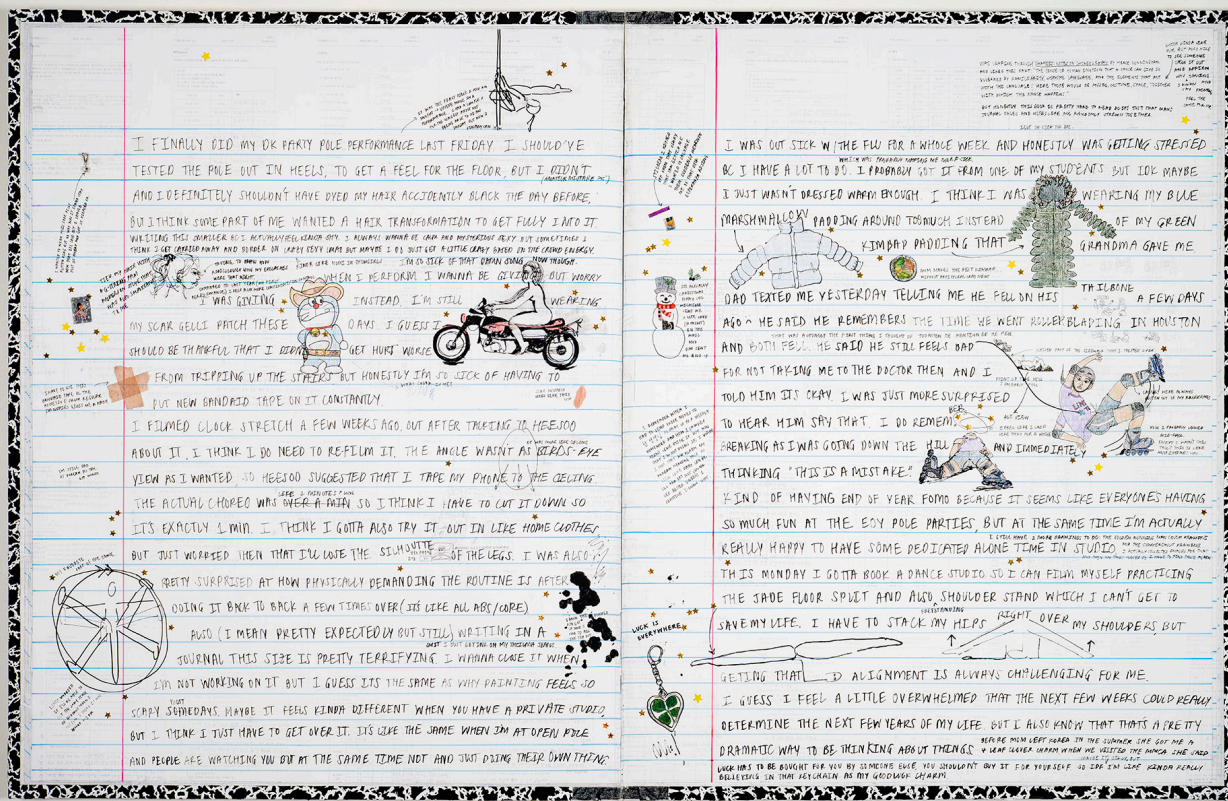






Lee Hyundo
습니다! (WILL) (2026)

acrylic and newspaper on panel, sanded
75 × 100 cm



Christine Cho
Yet now, I found I've grown into a tall child (2024)

acrylic, colored pencil, graphite, pen, gold star stickers,
pimple patches, clip-on belly button ring and Korean homework on canvas
117 × 183 cm (total dimensions of diptych)